

베이비 부머의 고용불안정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통제감의 조절·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정은경
(서울대학교)

하정화*
(서울대학교)

한경혜
(서울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베이비 부머가 경험하는 고용불안정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이러한 영향이 통제감에 의해 조절 및 매개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 베이비부머 패널의 1차년도 및 2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1차시의 고용불안정 정도 및 2년 사이 고용불안정 정도의 변화가 조사 참여자들의 건강상태(신체증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러한 관계를 통제감이 조절하는지, 그리고 2년 사이 통제감 수준의 변화가 고용불안정과 건강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고용불안정 정도가 높을수록, 또한 2년간 고용불안감이 증가할수록 신체증상을 경험하는 빈도가 높아졌다. 통제감은 고용불안정 정도가 신체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지는 못했지만 고용불안정 변화가 신체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였다. 한편 고용불안정 정도 및 그 변화가 신체증상에 미치는 영향은 2년간의 통제감 변화에 의해 부분적으로 매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베이비 부머에게 있어 고용불안정이 건강상의 문제를 초래하는 주요한 스트레스원이며, 개인의 심리적 자원으로서는 통제감을 증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용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거시적 차원의 접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주요용어: 베이비 부머, 고용불안정, 건강, 통제감, 스트레스 과정 모델

본 연구는 2010년과 2012년 메트라이프 코리아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연구책임자: 한경혜).

* 교신저자: 하정화, 서울대학교(junghwaha@snu.ac.kr)

■ 투고일: 2015.4.30 ■ 수정일: 2015.9.1. ■ 게재확정일: 2015.9.9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는 한국의 베이비 부머가 겪는 고용불안정이 이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통제감이 그 과정을 조절하거나 매개할 수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베이비 부머는 한국전쟁 직후인 1955년부터 산아제한정책이 도입되기 직전인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로, 2010년을 기준으로 총 712만 명, 전체 인구의 14.6%라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10). 베이비붐 세대는 근 50년간 이뤄진 한국 사회의 압축적인 사회경제적 변화를 겪어낸 세대라는 점에서, 현재 한국 사회의 고령층과는 사회경제적 수준이나 가치관 등에서 질적으로도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정경희 등, 2010; 한경혜, 2010). 이러한 점에서 베이비 부머의 노년기 진입은 한국의 고령화 현상 및 이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베이비 부머는 한국 사회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끈 주역으로서, 삶의 가치와 일상이 일 중심적으로 구조화되어온 세대이다(정호성 등, 2010). 2010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베이비 부머 3,0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베이비 부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에서 63.9%의 베이비 부머들이 노년기에도 일을 계속 하고 싶다고 응답하고 있어 베이비 부머의 일중심성을 잘 보여준다(정경희 등, 2010). 그러나 베이비 부머를 둘러싼 노동 시장의 현실을 살펴보면, 평생직장 개념이 약화되면서 불안정한 근로생애를 이어가는 근로자들이 많다(최선희 등, 2007). 평균적인 퇴직 연령은 55세이지만, 명예퇴직, 조기퇴직 등으로 인해 대부분이 그보다 이른 나이에 직장을 비자발적으로 그만두게 되는 등 고용불안정의 문제가 심각하다(방하남 등, 2005). 이와 더불어,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는 점도 베이비 부머가 경험하는 고용불안정성이 이들의 중노년기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높인다. 선행연구들은 베이비 부머들이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공적 노후보장체계에만 소극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이들이 노년기에 진입했을 때를 대비한 사회안전망도 미약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석재은, 이기주, 2010; 백은영, 2011; 한경혜, 손정연, 2012; 박창제, 2014).

서구에서는 고용불안정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들 중 건강상의 변화에 주목하여 이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이 축적되어왔다. 그러나 베이비 부머를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는 대부분 베이비 부머의 은퇴 양상과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측면의 변화(노후 준비, 부양, 주거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고, 베이비 부머가 겪는 고용불안정과 건강과의 연계에 대한 실증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이론적 틀로 Pearlin과 그의 동료들(1981)의 스트레스 과정 모델(stress process model)을 적용하여, 고용불안정이라는 스트레스 요인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스트레스 과정 모델은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자원에 의해 스트레스의 발현 정도가 매개 또는 조절된다는 것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자원들 중 통제감(mastery)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통제감이란 “자신의 생활 환경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스스로의 능력과 관련된 믿음”(Infurna & Mayer, 2015, p.433)을 의미하며, 은퇴와 같은 삶의 변화를 대처해나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심리적 자원으로 기능한다(한경혜 등, 2012). 이를 통제감의 조절효과라고 한다. 그런가하면 부정적인 생활 사건에 의해 영향을 받아 통제감이 저하하는 등의 변화를 보이면서(장유리 등, 2008), 이러한 통제감의 저하가 스트레스의 발현으로 이어지게 될 수도 있다. 이 때 통제감은 스트레스원과 스트레스 발현의 매개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 부머가 고용불안정을 경험 하며 건강상의 변화를 겪는 과정에서, 통제감이 조절 및 매개효과를 하는지를 실증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한국 최초의 대규모 종단 자료인 베이비부머 패널을 사용하여, 종단적 분석을 시행하고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또한 베이비 부머의 고용불안정이 건강악화로 이어지는 경로와 조절요인을 탐색함으로써 이에 대응 하는 사회적인 서비스 및 제도의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이론적 분석 틀: 스트레스 과정 모델

본 연구는 스트레스 과정 모델(Stress Process Model, Pearlin et al., 1981)을 분석틀로 삼고자 한다. Pearlin과 그의 동료들(1981)은 스트레스 관련 기존 연구들의 제한점으로 스트레스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연계성 없이 분절적으로 다루어 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스트레스의 구성요소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상호 연결되어 하나의 과정을 이루는지를 스트레스 과정 모델을 통해 살펴볼 것을 제안한 바 있다.

Pearlin과 그의 동료들(1981)에 따르면 스트레스 과정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개념은 세 가지로, 이는 스트레스원, 매개요인, 그리고 스트레스의 발현이다. 먼저, 스트레스 과정의 출발점이 되는 스트레스원은 중대한 사건일 수도 있으며,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생활 긴장일 수도 있다. 이러한 스트레스원의 발생에 대하여 개인들은 행동이나 인식 등을 통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는데, 스트레스원의 영향에 대하여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활용하는 요인들을 매개요인이라고 일컫는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을 통해 스트레스 과정 모델이 활용되면서, 오늘날에는 매개요인이라는 표현보다는 스트레스 과정에서 그 관계를 매개 또는 조절하는 역할을 포괄적으로 지칭할 수 있도록 보다 넓은 의미에서 심리사회적인 자원(혹은 매개/조절요인)이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Pearlin & Bierman, 2013). 마지막으로 스트레스의 발현은 스트레스의 결과로 나타나는 다양한 차원의 반응을 일컬으며, 이는 생화학적, 생리학적, 정서적 차원뿐만 아니라 내분비계나 면역, 혹은 신체·심리적 질병 등을 포괄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틀을 바탕으로, 베이비 부머의 고용불안정이라는 스트레스원이 건강악화라는 스트레스의 발현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통제감이라는 심리적인 자원이 그 관계를 매개하거나 조절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2. 베이비 부머의 고용불안정과 건강

베이비 부머의 성장과정은 그 자체로 한국 사회의 압축적인 변화를 담고 있다. 베이비 부머들은 유년기(1950년대)에는 절대빈곤 속에서, 10대와 20대(1960년대 및 1970년

대)에는 권위주의 정치 체제 속에서 살았으며,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한 1980년대에는 경제성장의 주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방하남 등, 2010; 한경혜, 2010). 이러한 역동성은 베이비붐 세대의 근로생애에서도 나타나는데,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활용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근로생애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신동균(2013)에 따르면 베이비 부머들은 대규모로 노동시장에 유입되어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그 어느 세대보다도 생애 주된 직장에 빠르게 정착하였으나, 1997년 발생한 외환위기로 인해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에 따른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다. 이에 더해 생애 주직장 취득에 실패한 응답자의 비율은 베이비붐 세대로 올수록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베이비 부머의 근로생애가 그 이전 세대에 비해 불안정하고 열악하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실제로 보건사회연구원의 2010년 조사에 따르면, 베이비 부머의 약 1/3이 현재 하는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불안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정경희 등, 2010). 그러나 이러한 고용불안정(job insecurity)이 건강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국내의 체계적 실증연구가 매우 부족하다.

고용불안정은 학자마다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정의해왔으나,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메타연구에 따르면 고용불안정은 “미래의 고용상태에 대한 전반적인 걱정 혹은 불안감 이라고 할 수 있으며 주로 응답자가 지각하는 직업 상실에 대한 확률로서 측정”(Cheng & Chan, 2008, p.275)된다. Jahoda(1982)의 잠재적 박탈 모델(latent deprivation model)에 따르면 직업은 소득원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상태 유지, 사회적 관계 형성 등 여러 측면의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현재 일자리를 상실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인지는 개인들의 삶에 광범위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Lazarus와 Folkman(1984)이 언급했듯,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실제 사건이 발생할 때 나타나는 영향과 유사하거나 심지어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서구에서는 고용불안정이 주요한 스트레스원으로서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 실증연구들이 상당 정도 축적되었고(이에 대한 메타연구로서 Sverke et al., 2002; De Witte, 2005; Cheng & Chan, 2008을 참조), 최근에는 보다 직접적으로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종단연구들도 이루어졌다(Ferrie et al., 2005; Kalil et al., 2009; Virtanen et al., 2010; 이상 De Witte et al., 2015에서 재인용). 반면, 고용불안정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국내연구는 비교적 최근에서야 이루어

지기 시작하였다. 대규모 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진행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고용불안정과 건강상태 간에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진욱 등, 2007; 신순철, 김문조, 2007; 최선희 등, 2007; 박세홍 등, 2009).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많은 연구들이 고용불안정을 회사의 조직개편, 인원감축 등 객관적인 사건의 경험 여부(Kalil et al., 2009) 혹은 종사상 지위 또는 그 변화로 측정하여(박진욱 등, 2007; 신순철, 김문조, 2007; 박세홍 등, 2009), 개인의 주관적 경험이라는 고용불안정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둘째, 고용불안정을 주관적 경험으로 측정한 연구들에서도 특정 시점에서의 고용불안정 정도만을 변수로 사용하거나(Ferrie et al., 2005; 최선희 등, 2007) 두 시점의 응답을 통합하여 개인이 경험하는 고용불안의 정도를 조작화하였다(Virtanen et al., 2010). 이로 인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고용불안정 정도가 변화할 때 이것이 건강상태에 미칠 수 있는 독립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못했다. 셋째로, 한 문항의 자가진단을 통해 건강수준을 측정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으며, 구체적으로 건강을 측정한 연구들에서도 우울감과 같은 정신건강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았다(Ferrie et al., 2005; 박세홍 등, 2009; Kalil et al., 2009; Virtanen et al., 2010).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베이비붐 세대가 속한 중장년층을 연구대상으로 특정한 연구는 부재하였다. 연령과 근무기간에 따라 고용불안정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Cheng & Chan, 2008), 중장년기 퇴직을 앞둔 베이비 부머 집단에게 고용불안정이 주는 의미는 다른 연령집단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 부머로 연구의 대상을 특정지어 그들이 응답하는 주관적인 고용불안정의 정도 및 그 변화가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건강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는 신체증상(physical symptoms)을 사용하고자 한다. 신체 증상은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한 인식이라는 점에서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변수로 활용되고 있다(Barling & Kelloway, 1996; Pelfrene et al., 2003; Virtanen et al., 2010; 이양숙, 장수정, 2013).

3. 통제감의 조절 및 매개효과

위에서 언급하였듯 고용불안정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가 서구에서는 비교적 많이 이루어져왔으나, 구체적으로 그 경로를 조절하거나 매개하는 심리사회적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는 아직까지 드물었다(De Witte et al., 2015).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심리사회적 자원 중 통제감의 역할을 중심으로 고용불안정이 건강에 미치는 조절 및 매개효과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Skinner(1996)가 지적하였듯이 통제(control)와 관련된 학문적 용어들은 백 여 가지가 넘는데, 본 연구가 이론적 틀로 삼고 있는 스트레스 과정 모델에서는 통제감(mastery)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이를 “자신의 삶이宿命론적으로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는 정도”(Pearlin & Schooler, 1978, p.5)로 정의하고 있다.

Pearlin과 Bierman(2013)에 따르면, 스트레스 과정 모델에서 통제감은 매개와 조절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즉, 스트레스원이 스트레스의 발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통제감이 감소시키기도 하지만(조절효과), 다른 한편 스트레스원에 대한 노출이 통제감을 하락시켜서 스트레스의 발현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매개효과). 이러한 논의를 본 연구에 대입해보자면, 우선 조절효과의 측면에서는 개인이 높은 통제감을 보유할 경우 고용불안정이 신체증상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완화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Pearlin과 Bierman(2013)은 스트레스 과정에서 통제감이 조절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이유를 두 가지로 제시하였는데, 높은 통제감을 보유한 개인은 그렇지 않은 개인에 비해 스트레스를 덜 심각하게 인지하며, 자신이 갖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동기가 더욱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통제감을 가지고 있다면, 고용불안이라는 상황을 보다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를 보일 경향이 높다는 점에서 건강이 상대적으로 덜 악화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Barling과 Kelloway(1996)는 광부 187명을 대상으로 고용불안정과 건강 간의 관계에서 직장 통제감(workplace control)¹⁾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비록 특정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직장 관련 통제감만을 살펴보았다는 한계가 있지만, 분석 결과

1) 해당 연구에서 직장 통제감이란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측정을 위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나는 내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들을 통제할 수 있다. 2) 나는 직장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사건들을 통제할 수 있다. 3) 나는 내 직장이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안다.) (Barling & Kelloway, 1996, p.255)

통제감은 고용불안정이 건강(신체증상, 혈압)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감이 낮을 때 고용불안정에 대한 인지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Nolan과 그의 동료들(2000)은 통제감과 문제해결적인 대처전략 간의 연관성을 강조하면서, 고용불안정에 따른 신체적·심리적 반응을 조절할 수 있는 요인들 중 하나로 통제감을 제시하였다. Lachman과 Weaver(1998)는 사회경제적인 지위와 건강과의 관련성을 탐색하였으며, 그 결과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통제감이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통제감의 조절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한편 매개효과의 측면에서는 베이비 부머의 고용불안정성이 증가하면 통제감이 낮아지게 되고, 이러한 통제감의 하락이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사업체의 운영난이나 구조조정과 같이 비자발적 이유로 인해 현재의 고용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울 거라고 인지할 때 개인은 고용불안감을 느끼게 된다(Sverke et al., 2002). Bierman(2011)은 이처럼 자신의 힘으로 피하거나 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스스로 발휘할 수 있다고 인지하는 통제력의 수준이 낮아진다고 제시하였으며, Greenhalgh와 Rosenblatt(1984)는 불안정한 고용상황에 대해 인지하는 것은 위험을 심각하게 함으로써 무력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스트레스원에 대처하는 중요한 자원인 통제감이 낮아질 경우 스트레스원의 부정적인 영향력은 더욱 크게 나타나게 되어 건강의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McDonough(2000)는 20세 이상 64세 미만의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성인 8,748명의 자료를 분석하여, 주관적 건강에 대한 고용불안정의 영향력이 통제감에 의해 부분적으로 매개되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통제감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조절변수 및 매개변수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살펴본 연구로는 Pudrovska와 그의 동료들의 연구(2005) 및 Creed와 Bartrum의 연구(2008)가 있다. 이들 연구결과에 따르면, 통제감이 높을 경우 생애과정에서 겪었던 경제적 어려움이나 실직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건강이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일부 완화되는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동시에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통제감의 수준이 하락하여, 낮아진 통제감이 건강상태나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매개효과도 관찰되었다. 그러나 고용불안정과 관련하여 통제감의 조절효과 및 매개효과를 동시에 살펴본 연구는 부재하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 부머의 고용불안정과 건강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통제감의 조절효과 및 매개효과를 함께 검증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가설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 부머의 고용불안정이 건강에 종단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 영향을 통제감이 조절 및 매개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첫째, 고용불안정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통제감은 고용불안정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

셋째, 통제감은 고용불안정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2. 분석자료

본 연구는 한국 베이비부머 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베이비 부머의 고용불안정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및 통제감의 조절·매개효과를 검증한다. 한국 베이비부머 패널 자료는 베이비 부머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 최초의 대규모 종단 연구 자료로, 2010년에 1차 조사가 시작되어 2년마다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4년까지 총 3회 조사가 실시되었다.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시/도 지역에 거주하는 베이비 부머(1955년에서 1963년 사이 출생자)에 대한 대표성 있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조사 모집단을 7개 권역(서울시, 경기도(인천포함), 강원도, 충청도(대전포함), 전라도(광주포함), 경상북도(대구포함), 경상남도(부산과 울산 포함))으로 층화하였으며, 조사모집단의 권역별 구성비의 차이를 고려하여 권역별로 20개의 표본을 우선 할당한 후 나머지는 비례배분법으로 표본을 배분하였다. 1차 조사 시 전체 표본 수는 4,668명이었고 2차 조사는 3,275명이 응답하여 표본유지율은 70.2%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경혜 등, 2013).

본 연구에서는 조사 결과가 정리되고 있는 중인 2014년 자료를 제외하고 2010년(1차)과 2012년(2차)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고용불안정, 신체증상 및 통제감에 대한 설문에 직접 응답한 참여자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종단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표본탈락으로 인한 표본 변형을 보정하기 위하여 기준시점인 1차시의 가중치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하 분석을 통해 제시되는 결과는 모두 가중치가 적용된 추정치이다.

3. 주요 변수 및 측정도구

가.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는 고용불안정이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고용불안정 정도' 및 '고용불안정 정도의 변화'라는 두 개의 독립변수를 사용하였다. '고용불안정 정도'는 1차 조사(2010년) 시 '사업체가 어려워지거나 해고될 것 같다'라는 문항에 대하여, 응답자가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과 관련해 자신의 상황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1~5점 척도로 답한 것을 통해 측정하였다. '고용불안정 정도의 변화'는 1차 조사와 2차 조사 사이 2년간 고용불안정 정도의 변화를 의미하며, 2차시의 고용불안정 정도에서 1차시의 고용불안정 정도를 뺀 점수를 변수로 사용하였다.

나.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2차 조사(2012년) 시에 측정한 신체증상이다. 두통, 허리 통증, 신경이 곤두서고 짜증남, 관절의 통증 혹은 뻣뻣함, 수면장애라는 다섯 가지 신체적 증상에 대한 경험빈도를 '전혀 경험하지 않음, 거의 경험하지 않음, 가끔 경험함, 자주 경험함, 매우 자주 경험함'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고용불안정이 건강에 미치는 종단적 효과를 탐색하기 위하여 1차시의 신체증상 수준을 통제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조사 시점 간 측정 척도 차이를 반영하고자 신체증상을 전체 표본의 평균과 표준편차에 따라 표준화한 값을 사용하였다.²⁾

2) 신체증상의 측정방법에 있어 1차 조사와 2차 조사 간에 차이가 있다. 1차시에는 '전혀 경험하지 않음, 한 달에 한 번 미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2~3회, 일주일에 1회, 일주일에 2~4회, 일주일에 5회 이상'으로 나누어 1~7까지의 척도로 측정한 반면, 2차 조사에서는 빈도를 1~5점으로 측정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1차 조사와 2차 조사 시의 신체증상을 전체 표본의 평균과 표준편차에 따라 표준화한 값을 사용하였다.

다. 조절변수

본 연구의 조절변수는 통제감으로, 고용불안정 정도 및 고용불안정 변화가 2차시의 신체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수 있는 심리적 자원으로서의 통제감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기준시점인 1차 조사 시의 값을 사용하였다. 통제감은 Ryff(1989)의 심리적 안녕감 척도의 하위 영역으로서 환경에 대한 통제력(environmental mastery)³⁾을 측정하는 문항들 중 베이비부머 패널 조사에 포함된 두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통제감은 '나는 내가 놓여있는 상황을 잘 통제하고 있다', '나는 내게 주어진 일들을 잘 처리한다'라는 두 문항에 대하여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7점(매우 그렇다)으로 응답한 것을 통해 측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두 문항에 대한 응답자의 점수의 평균값을 취해 값이 높을수록 통제감이 큰 것으로 나타나도록 하였다(Cronbach's $\alpha = .834$).

라. 매개변수

본 연구에서는 고용불안정 수준 및 고용불안정 변화가 통제감을 매개로 하여 2차시의 신체증상에 미치는 종단적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1차시와 2차시 간 통제감 수준의 변화값을 매개변수로 사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조사시점 간 통제감의 측정 척도의 차이를 반영하고자 각 시점의 통제감을 전체 표본의 평균과 표준편차에 따라 표준화한 값을 활용하였는데, 1차시에는 통제감이 1점에서 7점 척도로 측정된 반면, 2차시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의 1~4점 척도로 측정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제감 변화는 2차시의 통제감을 표준화한 값에서 1차시의 통제감을 표준화한 값을 뺀 점수를 변수로 사용하였다.

3) Ryff(1995)에 따르면 환경에 대한 통제력(environmental mastery)이란 "자신의 삶과 주변 환경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p.720)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개념의 정의와 표준화된 척도의 문항을 고려하였을 때 통제감(mastery)으로 개념화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통제변수

본 연구는 고용불안정이 신체증상에 미치는 중단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1차시(2010년)의 신체증상 수준을 통제하고, 관련 선행연구들(Sverke et al., 2002; 박진옥 등, 2007; 신순철, 김문조, 2007; 최선희 등, 2007; 박세홍 등, 2009)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2차 조사 시의 신체증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구사회학적 변수(성별, 연령, 소득, 교육수준, 배우자와의 동거여부, 종사상 지위 변수)들의 1차시 값을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성별은 더미코딩하여 남성에게 1, 여성에게 0의 값을 부여하였고 연령은 자기보고식으로 기입된 연속변수를 사용하였다. 소득은 가구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후 편포(skewed distribution) 현상을 고려하여 이에 로그를 취한 값을 사용하였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미만,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학교 졸업, 4년제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각각에 대해 더미코딩을 하여, 다수 집단인 고등학교 졸업 집단을 기준집단으로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배우자와의 동거여부는 배우자와 동거하는 경우를 1, 미혼, 별거, 이혼, 사별 등의 이유로 현재 배우자가 없거나 동거하지 않는 경우를 0의 값으로 부여하였다. 마지막으로 종사상 지위는 정규직 임금근로자,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 각각에 대하여 더미코딩을 하여, 다수 집단인 정규직 임금근로자 집단을 기준집단으로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4. 분석방법

첫째,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를 활용하여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본다. 그리고 주요 변수들인 고용불안정, 신체증상, 통제감의 기술통계치를 살펴봄으로써 조사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고 회귀 분석의 주요 가정 중 하나인 변수의 정규성 가정이 충족되는지를 검토한다. 또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다.

둘째,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세 가지 연구가설을 검증한다. 우선 고용불안정이 신체증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첫 번째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통제변수만을 투입했을 때와 독립변수를 추가 투입했을 때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다음으로, 두 번째 가설로서 통제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으며,

이 때 투입되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을 줄이기 위하여 각 변수에는 변수들의 평균값을 빼는 센터링(centering)을 실시하였다(Aiken et al., 1991).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설로서 통제감 변화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방법을 활용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토하고, 간접효과의 크기를 파악하기 위해 Dudley와 Benuzillo(2004)의 macro를 사용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표 1>에서는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⁴⁾이 제시되어 있다.

첫째, 성별 구성을 보면 전체 2,979명 중 남성이 1,847명으로 전체의 62.0%, 여성이 1,131명으로 전체의 38.0%를 차지함으로써 남성이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교육수준의 경우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사람이 1,467명(49.3%)으로 조사대상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으며, 고등학교 졸업 미만이 747명(25.1%), 전문대학교 졸업이 266명(8.9%), 대학교 졸업이 425명(14.3%), 대학원 이상이 73명(2.4%)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는 사람이 2,704명(90.8%)으로 조사 대상자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미혼, 별거,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는 응답자는 275명(9.2%)이었다. 마지막으로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정규직 임금근로자가 983명(33.0%)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는 자영업이 810명(27.2%), 비정규직 임금근로자가 715명(24.0%), 임금근로자를 둔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256명(8.6%), 무급가족종사자가 215명(7.2%)인 순서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조사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적으로 약 51.6세였으며 연간 평균소득은 4,52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4) <표 1>에서의 수치는 가중치를 준 후의 수치이기 때문에 빈도가 정수로 나오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반올림을 하여 값을 제시하였다. 이로 인해 각 항목에 있는 빈도를 모두 더했을 때 전체 빈도수와 차이가 날 수 있다. 가중치를 주지 않았을 경우 조사 대상자의 전체 수는 2,254명이었고, 이 중 남성이 1,332명(59.1%), 여성이 922명(40.9%)이었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2,979)

변수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성	1,847	(62.0)
	여성	1,131	(38.0)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미만	747	(25.1)
	고등학교 졸업	1,467	(49.3)
	전문대학교 졸업	266	(8.9)
	대학교 졸업	425	(14.3)
	대학원 이상	73	(2.4)
배우자 동거여부	동거	2,704	(90.8)
	비동거	275	(9.2)
종사상 지위	정규직 임금근로자	983	(33.0)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715	(24.0)
	자영업	810	(27.2)
	임금근로자를 둔 사업체	256	(8.6)
	무급가족종사자	215	(7.2)
변수		평균	표준편차
연령		51.6	(2.59)
소득 (단위: 만원)		4,526.39	(2,306.92)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표 2>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고용불안정, 신체증상, 통제감의 기술 통계치를 제시하였다. 고용불안정 정도의 평균값은 1.974(응답범주상의 중간값: 3점)로, 조사 대상자들은 자신의 고용상태를 대체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불안정 변화의 평균은 .041(응답범주상의 중간값: 0점)로 중간 정도의 수준을 보였다. 다음으로 통제감의 평균값은 4.985로 중간값인 4점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감의 변화는 1차시와 2차시의 측정 척도 차이로 인하여 전체 표본의 평균과 표준편차에 따라 표준화한 값을 사용하였으며 평균은 .037이었다. 신체증상 또한 1차시와 2차시에 측정 척도에 차이가 있어서 분석 시에 전체 표본의 평균과 표준편차에 따라 표준화된 값을 사용하였으며, 1차시에는 평균이 -.067, 2차시에는 평균이 -.138로 나타났다. 정규성 검토를 위해 왜도와 첨도값을 확인한 결과, 모든 변수가 정규성에서 벗어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변수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고용불안정 정도	1.974	(.954)	.835	.085
고용불안정 변화	.041	(1.151)	-.118	.471
통제감	4.985	(1.111)	-.750	.776
통제감 변화	.037	(1.349)	.214	.416
신체증상(1차)	-.067	(.981)	1.223	1.338
신체증상(2차)	-.138	(.992)	.184	-.580

다음으로 주요 변수들 간의 Pearson 적률상관관계 계수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아래의 표에서 제시한 변수들뿐만 아니라 분석에 포함된 전체 변수들 간에 .8을 넘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나타내는 통계치인 분산팽창계수(VIF) 값이 10 이하이므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은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지 않았을 때 개별 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보여주는데, 통제감 변화를 제외하고 모든 변수들이 종속변수인 신체증상(2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시의 신체증상과 고용불안정 정도는 2차시 신체증상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고용불안정 변화와 통제감은 2차시 신체증상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3.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변수	1	2	3	4	5	6
1 신체증상(2차)	1					
2 신체증상(1차)	.356***	1				
3 고용불안정 정도	.186***	.093***	1			
4 고용불안정 변화	-.064***	.006	-.631***	1		
5 통제감	-.118***	-.021	-.135***	.053**	1	
6 통제감 변화	.023	-.117**	.024	-.118**	-.664***	1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3. 다중 회귀분석 결과

가. 고용불안정이 신체증상에 미치는 영향

1차시의 신체증상 수준 및 기타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고용불안정 정도 및 고용불안정 변화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우선 통제변수만을 투입했을 때의 결과를 살펴보면(1단계), 1차 조사 시 신체증상을 빈번히 경험했던 사람일수록($b=.321, p<.001$), 연령이 높을수록($b=.015, p=.025$),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사람에 비해 고등학교 졸업 미만인 사람이($b=.124, p=.004$), 그리고 정규직 임금근로자에 비해 임금근로자를 둔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b=.170, p=.009$) 신체증상을 더욱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보다 남성이($b=-.218, p<.001$),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사람에 비해 대학원 졸업 이상인 사람이($b=-.344, p=.002$), 그리고 정규직 임금근로자에 비해 무급가족종사자($b=-.149, p=.049$)가 신체증상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독립변수들을 추가 투입하였을 때의 결과를 살펴보면(2단계), 자신의 고용상태가 불안하다고 느꼈을수록($b=.086, p<.001$), 또한 2010~2012년 사이 2년간에 고용불안감이 높아질수록($b=.073, p<.001$) 신체증상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용불안정 정도 및 고용불안정의 변화는 신체증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첫 번째 연구가설이 지지되었다.

나. 고용불안정이 신체증상에 미치는 영향에서 통제감의 조절효과

다음으로, 고용불안정이 신체증상에 미치는 영향이 통제감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조절변수를 투입한 후(3단계), 상호작용항인 ‘고용불안정 정도×통제감 및 ‘고용불안정 변화×통제감을 투입하였다(4단계). 이 때 상호작용항을 각각 투입했을 때와 동시에 투입했을 때 분석결과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두 결과를 함께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조절변수인 통제감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표 4>의 3단계, $b=.021, p=.181$). 그리고 통제감의 조절효과는 고용불안정의 변화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나타났다(<표 4>의 4단계). 즉 고용불안정 정도와 통제감은 유의한 상호작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고용불안정 변화와 통제감은 .1 수준에서 유의한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항을 따로 투입하였을 경우 ‘고용불안정 변화×통제감’ 상호작용항의 통계적 유의도는 .085였으며($b=-.021, p=.085$), 동시에 투입하였을 경우에는 통계적 유의도가 .051이었다($b=-.031, p=.051$). 이러한 점에서 고용불안정이 신체증상에 미치는 영향에서 통제감의 조절효과가 있다고 가정한 두 번째 가설은 고용불안정의 변화가 신체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한해서만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한편, 상호작용효과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형태를 도식화할 필요가 있다 (Aiken et al., 199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절변수인 통제감이 평균보다 1 표준편차 클 때, 평균 수준일 때, 그리고 평균보다 1 표준편차 작을 때를 각각 ‘통제감이 높을 때’, ‘통제감이 평균 수준일 때’, 그리고 ‘통제감이 낮을 때’로 설정하여 상호작용의 양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검정하고자 하는 주요 변수 외에 통제변수들은 평균값을 취하였으며, 더미코딩된 변수들의 경우 다수값(성별은 남성,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배우자와의 동거여부는 동거, 종사상 지위는 정규직 임금근로자)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설정 하에서, 통제감의 수준에 따라 베이비 부머가 인지하는 고용불안정의 변화가 신체증상에 미치는 영향력의 변화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은 [그림 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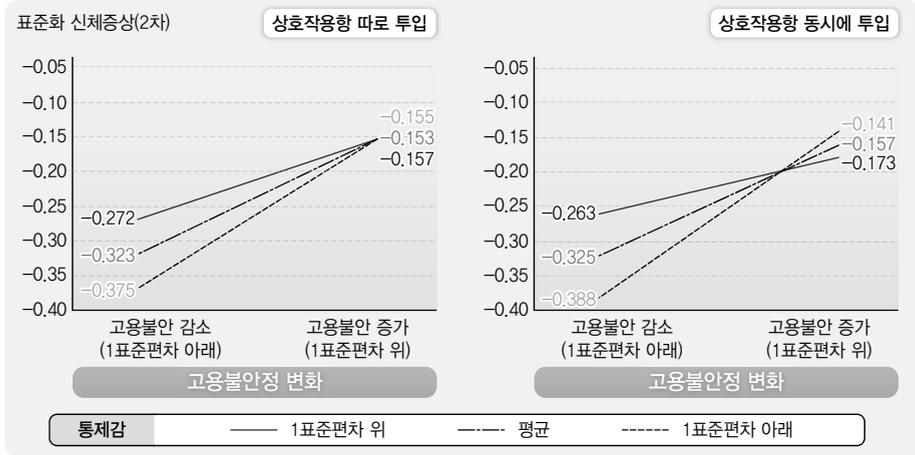
[그림 5]에서 좌측에 있는 그래프는 두 개의 상호작용항을 따로 투입하였을 때의 결과이며, 우측에 있는 그래프는 상호작용항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의 결과이다. 두 그래프 모두 통제감이 높은 집단은 고용불안감이 높아졌을 때 신체증상이 나빠지는 정도가 완만하였으나, 통제감이 낮은 집단의 경우 고용불안감 증가가 신체증상의 가파른 증가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표 4. 베이비 부머의 고용불안정이 신체증상에 미치는 영향과 통제감의 조절효과

변수	조절효과 검증						
	1단계 (통제변수)	2단계 (독립변수)	3단계 (조절변수)	4단계(상호작용항)			
				상호작용항 따로 투입	동시에 투입		
	b(se)	b(se)	b(se)	b(se)			
(상수)	-.569(.389)	-.782(.393)*	-.567(.390)	-.567(.390)	-.575(.390)	-.578(.390)	
통제 변수	신체증상(1차)	.321(.018)***	.310(.018)***	.312(.018)***	.313(.018)***	.315(.018)***	
	성별 (기준: 여성)	-.218(.041)***	-.237(.041)***	-.232(.041)***	-.232(.041)***	-.233(.041)***	-.235(.041)***
	연령	.015(.007)*	.016(.007)*	.015(.007)*	.015(.007)*	.015(.007)*	.015(.007)*
	소득	-.023(.023)	-.019(.023)	-.021(.023)	-.021(.023)	-.021(.023)	-.021(.023)
	학력 (기준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미만	.124(.043)**	.125(.043)**	.125(.043)**	.126(.043)**	.127(.043)**	.127(.043)**
	전문대학교 졸업	-.066(.062)	-.063(.062)	-.063(.062)	-.064(.062)	-.067(.062)	-.067(.062)
	4년제 대학교 졸업	-.068(.053)	-.068(.053)	-.074(.053)	-.074(.053)	-.071(.053)	-.070(.053)
	대학원 이상	-.344(.111)**	-.326(.111)**	-.318(.111)**	-.318(.111)**	-.315(.111)**	-.312(.111)**
	배우자 동거여부	-.048(.060)	-.030(.060)	-.031(.060)	-.032(.060)	-.027(.060)	-.024(.060)
	종사상 지위 (기준 정규직 임금근로자)						
	비정규 임금근로자	-.037(.048)	-.044(.048)	-.040(.048)	-.040(.048)	-.042(.048)	-.045(.048)
	자영업자	.049(.045)	.039(.044)	.041(.044)	.041(.045)	.040(.044)	.038(.045)
	임금근로자를 둔 사업체	.170(.065)**	.177(.065)**	.185(.065)**	.184(.065)**	.176(.065)**	.175(.065)**
	무급가족종사자	-.149(.075)*	-.171(.076)*	-.174(.076)*	-.173(.076)*	-.170(.076)*	-.171(.076)*
독립 변수	고용불안정 정도	-	.086(.023)***	.089(.023)***	.090(.024)***	.090(.023)***	
	고용불안정 변화	-	.073(.019)***	.074(.019)***	.074(.019)***	.071(.019)***	
조절 변수	통제감	-	-	.021(.016)	.021(.016)	.023(.016)	
	상호 작용 항	고용불안정 정도 × 통제감	-	-	.006(.015)	-	-.020(.020)
	고용불안정 변화 × 통제감	-	-	-	-.021(.012)†	-.031(.016)†	
△F	40.966***	8.736***	1.794	.135	2.967†	1.968	
Adjusted R ²	.149	.153	.153	.153	.154	.154	
△R ²	.149	.005	.000	.000	.001	.001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5. 베이비 부모의 고용불안정 변화가 신체증상에 미치는 영향과 통제감의 조절효과



다. 고용불안정이 신체증상에 미치는 영향에서 통제감의 매개효과

다음으로, 고용불안정이 신체증상에 미치는 영향이 통제감의 변화에 의해 매개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방식에 따라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Baron과 Kenny(1986)는 매개변수 성립에 필요한 세 단계의 검증과정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것으로, 분석결과 이 조건은 충족되었다(<표 6>의 1단계). 두 번째 성립조건은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변수(고용불안정 정도 및 고용불안정 변화)가 매개변수인 통제감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표 6>의 2단계). 그 결과 다른 변수들이 통제된 상태에서 고용불안정 정도는 통제감 변화에 유의미한 부정 영향을 미쳤으며($b = -.116, p = .001$), 고용불안정의 변화도 통제감 변화에 유의한 부정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b = -.203, p < .001$). 즉 베이비 부모가 인지하는 고용불안정의 정도와 그 변화는 모두 통제감 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립조건은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했을 때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매개변수를 추가한 후에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거나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매개변수인 통제감 변화는 종속변수인 신체증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끼쳤다($b = -.084, p < .001$). 다음으로 매개변수를 투입한 후 독립 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회귀계수 변화를 살펴보면, 매개변수가 투입되기 이전(<표 6>의 1단계)에는 고용불안정 정도의 b 값이 .086으로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매개변수 투입 후(<표 6>의 3단계)에는 회귀계수가 .076으로 감소하였다(.01 수준에서 유의). 또한 고용불안정 변화도 매개변수의 투입 전에는 b 값이 .073이었으며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는데, 매개변수 투입 후에는 b 값이 .056으로 감소하였다(.01 수준에서 유의). 이러한 점에서 통제감 변화는 고용불안정 및 고용불안정의 변화가 신체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적으로 매개하였으므로, 세 번째 가설이 지지되었다.

이와 같은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파악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검증 결과 고용불안정 정도에 대한 통제감의 검증값은 3.059로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나타냈으며, 고용불안정 변화에 대한 통제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검증값은 4.940으로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불안정 정도가 신체증상에 미치는 영향에서 통제감의 간접효과 크기는 전체 효과의 약 11%로 나타났으며, 고용불안정 변화가 신체증상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통제감을 통한 간접효과는 약 23%로 나타났다.

표 6. 베이비 부머의 고용불안정이 신체증상에 미치는 영향과 통제감의 매개효과

변수	매개효과 검증			
	1단계 (독립변수→종속변수)	2단계 (독립변수→매개변수)	3단계 (독립/매개변수→종속변수)	
	b(se)	b(se)	b(se)	
(상수)	-.782(.393)*	1.231(.569)*	-.679(.391)†	
통제 변수	신체증상 (1차)	.310(.018)***	.064(.026)*	.315(.018)***
	성별 (기준: 여성)	-.237(.041)***	.101(.059)†	-.228(.040)***
	연령	.016(.007)*	-.024(.010)*	.014(.007)*
	소득	-.019(.023)	.010(.033)	-.018(.023)
	학력 (기준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미만	.125(.043)**	-.174(.062)**	.110(.043)*
	전문대학교 졸업	-.063(.062)	-.165(.090)†	-.077(.062)
	4년제 대학교 졸업	-.068(.053)	-.221(.077)**	-.087(.053)†
	대학원 이상	-.326(.111)**	.834(.160)***	-.256(.110)*
	배우자 동거여부	-.030(.060)	.114(.087)	-.021(.060)
	종사상 지위 (기준 정규직 임금근로자)			
	비정규 임금근로자	-.044(.048)	.073(.070)	-.038(.048)
	자영업자	.039(.044)	.193(.064)**	.055(.044)
	임금근로자를 둔 사업체	.177(.065)**	.378(.094)***	.209(.065)**
	무급가족종사자	-.171(.076)*	-.004(.110)	-.171(.075)*
	독립 변수	고용불안정 정도	.086(.023)***	-.116(.034)**
고용불안정 변화		.073(.019)***	-.203(.028)***	.056(.019)**
매개 변수	통제감 변화	—	—	-.084(.013)***
△F	36.854***	9.565***	44.276***	
Adjusted R ²	.153	.041	.165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표 7. 통제감의 매개효과 검증: Sobel Test

독립변수	변수		t값	전체효과 중 매개되는 비율
	매개변수	종속변수		
고용불안정 정도	통제감 변화	신체증상	3.059**	11.4%
고용불안정 변화			4.940***	23.2%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V.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에서는 2년에 걸친 종단자료를 통해 베이비 부머의 고용불안정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및 통제감의 조절·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고용불안정 경험은 고용불안정 정도 및 고용불안정 변화라는 두 가지 변수로 나누어 각각의 변수들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건강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신체증상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건강에 대한 고용불안정의 영향이 개인의 통제감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고용불안정이 건강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통제감의 변화가 이를 매개하는지를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베이비 부머가 인지하는 고용불안정의 정도 및 그 변화가 신체증상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여, 자신의 고용상태가 불안하다고 인지했을수록, 그리고 고용상태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할수록 신체증상을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고용불안정의 변화가 신체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제감의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서, 고용불안감이 증가하더라도 높은 통제감을 가진 경우에는 신체증상을 상대적으로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용불안정 정도가 신체증상에 미치는 영향은 통제감에 의해 조절되지 않았다. 셋째로, 고용불안정 정도와 그 변화는 통제감의 변화에 의해 부분적으로 매개되었는데, 고용상태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응답자일수록 통제감이 낮아지고, 이에 따라 신체증상을 더욱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가 가능하다.

첫째, 고용불안정에 대한 인지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베이비 부머가 경험하는 고용불안정이 건강상의 문제까지 초래할 수 있는 주요한 스트레스원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직업을 통해 개인이 충족하는 다양한 차원의 이득을 고려했을 때(Jahoda, 1982),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은 삶에서 직업 활동의 위상을 높게 평가하는 베이비 부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특히 베이비 붐 세대의 상당수가 경제적 노후 대비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일자리의 상실에 대한 불안감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고용불안정으로 인해 베이비 부머들이 겪을 수 있는 사회경제적 측면의 변화뿐만 아니라 건강상의 변화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고용불안정 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통제감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높은 통제감을 보유한 개인들은 자신의 고용지위가 불안정해질 때 이를 보다 긍정적으로 인지하거나 대처방안을 적극적으로 탐색함으로써 신체 증상을 덜 경험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통제감의 힘에 주목하여, De Witte와 그의 동료들(2015)은 통제감을 증진하기 위해 회사 또는 조직 단위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소통, 참여, 그리고 고용가능성을 높일 것을 제시한다. 예를 들자면, 조직 내에서 조직의 운영 및 고용 상황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조직의 향후 운영과 관련된 결정과정에 참여하며, 조직 구성원들이 현재의 일자리를 그만둔 후에도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접근은 개인들이 자신의 고용지위가 향후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보다 명확히 예측하게 하고,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을 갖추어 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제감을 높이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 한편, 통제감은 '고용불안정 정도'가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조절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고용불안정 정도와 통제감은 동일 시점(1차시)에서 측정되었는데, 1차시에 측정된 통제감은 이미 해당 시점에서 경험하고 있는 고용불안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값일 가능성이 높다. Folkman(1984)이 지적했듯 스트레스 과정에서 개인의 통제력에 대한 인식은 인간과 환경 간의 관계 속에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고용불안정의 변화와는 달리, 고용불안정 정도에 대한 통제감의 완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다.

셋째, 베이비 부머가 인지하는 고용불안정의 정도와 그 변화는 통제감의 변화에 의해 부분적으로 매개되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불안정 상황이 내포하는 불확실성과 모호성은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개인에게 무력감을 느끼게 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적응적 행동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McDonough, 2000). 즉 고용불안정에 따른 통제감의 하락은 개인이 스트레스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스트레스의 발현을 증가시켜 베이비 부머의 건강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종합해보았을 때, 고용불안정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통제감은 조절 및 매개변수로서의 이중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불안정이라는 외부 상황에 대한 인식이 미치는 부정적인 결과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자원에 따라 완충될 수 있다는 조절효과의 결과는, 고용불안정이라는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개인이 자신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지 않고 주도적으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인식적인 기반과

개인의 통제감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지원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이와 동시에 매개효과의 측면을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용불안정 상황에서 개인이 보유하고 있던 통제감의 수준은 낮아지게 되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베이비 부모의 고용불안정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통제감과 같은 개인 내적인 자원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Pearlin과 Schooler(1978)는 인간이 경험하는 주요한 문제들 중에서는 개인적인 대처자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개인적인 대응은 “불완전한 사회조직의 충격을 흡수하는 얇은 쿠션(p.18)” 정도에 불과하므로 사회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의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퇴직을 대비할 수 있도록 정년을 연장하거나, 불안정한 취업상태인 사람들에게는 적절한 일자리를 찾도록 지원함으로써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안정성을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많은 수의 베이비 부모들이 정년 시점에서도 완전히 은퇴하기보다는 퇴직 후 창업, 재취업을 하는 등 노동시장에서의 이탈 및 재진입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한경혜, 손정연, 2012). OECD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한국 취업자들이 경제 활동을 완전히 그만두는 연령은 평균 정년보다 훨씬 늦은 68세이며(방하남 등, 2010), 평균 정년과 실제 노동시장 은퇴 연령 간의 간극으로 인해 대부분의 베이비 부모들은 주된 일자리로부터의 퇴직 이후에도 오랜 시간동안 불안정한 고용상황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퇴직 이후 완전히 은퇴하기 전까지 갖게 되는 가교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퇴직 이후 기본적인 노후 생활이 보장되도록 사회안전망을 내실화하여 미래의 직업 상실에 대해 개인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낮출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인 맥락이 제공될 때, 자신의 필요에 따라 환경을 변화시키며 삶에 주체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통제감의 의미도 더욱 잘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불안정 및 통제감 변수의 측정과 관련된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 고용불안정한 문항에 대한 응답자의 답변으로 측정되었는데, 최근에는 Ashford와 그의 동료들(1989)과 같이 다양한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에 대한 응답으로 고용불안정을 측정하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여전히 많은 연구들에서 직업 상실의 불안감에 대한 단일 문항

으로 고용불안정을 측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으나(Sverke et al., 2002), 후속 연구에서는 고용조건이나 재취업 전망 등 다양한 차원을 포함하고 있는 측정도구를 활용한다면 고용불안정의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통제감의 경우 조사자료에 포함된 문항의 한계로 인해 Ryff(1989)의 심리적 안녕감 척도 중 일부를 통제감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사용하였다. Ryff(1989)에서 제시된 환경에 대한 통제감(environmental mastery)의 정의 및 원칙도를 고려하였을 때 조사자료에 포함된 문항들을 통제감(mastery)으로 개념화하는 것이 적절하고 분석을 통해 신뢰도 역시 적합한 것으로 나왔으나, 표준화된 척도를 사용하여 이를 측정할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결과를 해석할 때 본 연구에 포함된 문항들의 의미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에는 Infurna와 Mayer(2015)가 지적했듯 통제감이 서로 다른 두 가지 하위차원(① competence: 환경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 ② contingency: 환경이 얼마나 구조화되고 반응적인지에 대한 생각(Skinner, 1996))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구분하여 통제감을 측정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는 점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제감의 두 가지 하위차원을 모두 포괄하는 일반적인 의미로서의 통제감을 살펴보았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통제감을 측정하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스트레스 과정 모델을 이론적 틀로 삼아, 고용불안정이라는 스트레스 원에 따르는 건강상의 변화를 신체증상을 통해 살펴보고, 이를 조절 및 매개하는 요인으로서 통제감의 역할을 확인하였다. 후속 연구들을 통해 고용불안정이 신체질환이나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통제감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진 대처 양식이나 사회적 지지 등이 베이비 부머의 고용불안정과 건강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지를 규명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고용불안정이 건강 및 안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함에 있어 문화나 사회보장 체계 등 거시적 요인의 역할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De Witte et al., 2015). 후속 연구에서는 개인의 심리적 자원뿐만 아니라 거시적 수준의 요인을 함께 고려한다면, 베이비 부머의 고용 및 건강과 관련된 변화 과정에 대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박세홍, 김창업, 신영전. (2009). 고용상태 변화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상황과복지*, 27, pp.79-120.
- 박진옥, 한윤정, 김승섭. (2007). 고용형태의 변화에 따른 건강불평등. *예방의학회지*, 40(5). pp.388-396.
- 박창제. (2014). 베이비부머와 전(前)베이비부머의 재무적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63. pp.309-335.
- 방하남, 신동균, 김동현, 신현구. (2005). 인구 고령화와 노동시장 변화 및 노동정책과제.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방하남, 신동균, 이성균, 한준, 김지경, 신인철. (2010). 한국 베이비붐 세대 근로생애(Work Life) 연구.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백은영. (2011). 베이비부머의 은퇴 준비와 준비 유형 결정요인 분석. *사회보장연구*, 27(2). pp.357-383.
- 석재은, 이기주. (2010).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활동특성별 유형화와 다층노후소득보장 전략. 2010 한국사회보장학회 추계정기학술대회 및 복지재정DB 학술대회 자료집. pp.25-74.
- 신동균. (2013). 베이비 붐 세대의 근로생애사 연구. *보건사회연구*, 33(2), pp.5-32.
- 신순철, 김문조. (2007). 직업과 고용형태가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보건과 사회과학*, 22. pp.205-224.
- 이양숙, 장수정. (2013). 기혼간호사의 일-가족 양립갈등, 조직문화, 상사지지와 정신적, 신체적 건강과의 상관관계. *보건사회연구*, 33(2), pp.394-418.
- 장유리, 이정남, 윤현숙, 김수영. (2008). 노년기 자기 통제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 *한국노년학*, 28(4), pp.1055-1068.
- 정경희, 이소정, 이윤경, 김수봉, 선우덕, 오영희, 등. (2010). 베이비 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호성, 강성원, 문외솔, 박준, 손민중, 이찬영, 등. (2010). 베이비붐 세대 은퇴의 파급효과와 대응방안.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최선희, 정우석, 이자혜. (2007). 고용안정성이 임금노동자의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회 2007 전기 사회학대회 논문집*. pp.311-320.

- 통계청. (2010). 통계로 본 베이비붐 세대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http://www.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saSeq=70786&pageNo=&rowNum=10&amSeq=&sTarget=&sTxt=에서
2015.2.28. 인출.
- 한경혜. (2010). 한국의 베이비부머: 생활세계와 라이프코스에 대한 이해. 한국노년학회
(편), 2010년 한국노년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서울: 한국노년학회, pp.3-13.
- 한경혜, 김주현, 백옥미. (2012). 베이비부머들의 은퇴에 대한 재정적 준비와 건강 준비의
관련 요인 탐색: 심리적 요인과 자원 요인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58, pp.133-162.
- 한경혜, 손정연. (2012).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과정, 경제적·관계적 자원과 심리적 복지감.
한국가족복지학, 38, pp.291-330.
- 한경혜, 우석진, 최혜경, 하정화. (2013). 베이비부머 삶의 변화와 지속성, 2010-2012:
한국 베이비부머 패널 연구 2차년도 보고서. 서울: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
- Aiken, L., West, S., & Reno, R.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Ashford, S. J., Lee, C., & Bobko, P. (1989). Content, cause, and consequences of
job insecurity: A theory-based measure and substantive test.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2(4), pp.803-829.
- Barling, J., & Kelloway, E. K. (1996). Job insecurity and health: The moderating
role of workplace control. *Stress Medicine*, 12(4), pp.253-259.
- Baron, R., & Kenny, D.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pp.1173-1182.
- Bierman, A. (2011). Pain and depression in late life: Mastery as mediator and
moderator.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66B(5), pp.595-604.
- Cheng, G. H. L., & Chan, D. K. S. (2008). Who suffers more from job insecurity?
A meta-analytic review. *Applied Psychology*, 57(2), pp.272-303.
- Creed, P. A., & Bartrum, D. A. (2008). Personal control as a mediator and moderator
between life strain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the unemployed.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8(2), pp.460-481.

- De Witte, H. (2005). Job insecurity: Review of the international literature on definitions, prevalence,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SA Journal of Industrial Psychology*, 31(4), pp.1-6.
- De Witte, H., Vander Elst, T., & De Cuyper, N. (2015). Job insecurity, health and well-being. In Vuori, J., Blonk, R., & Price, R. H. (Eds), *Sustainable Working Lives* (pp.35-48), New York: Springer.
- Dudley, W., & Benuzillo, J. (2004). *SPSS FAQ - How can I test for mediation effects in SPSS?* [SPSS Syntax File]. Retrieved from <http://statistics.ats.ucla.edu/stat/spss/faq/mediation/Example1.SPS>.
- Ferrie, J. E., Shipley, M. J., Newman, K., Stansfeld, S. A., & Marmot, M. (2005). Self-reported job insecurity and health in the Whitehall II study: Potential explanations of the relationship. *Social Science & Medicine*, 60(7), pp.1593-1602.
- Folkman, S. (1984). Personal control and stress and coping processes: A theoretic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4), pp.839-852.
- Greenhalgh, L., & Rosenblatt, Z. (1984). Job insecurity: Toward conceptual clarity.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9(3), pp.438-448.
- Infurna, F. J., & Mayer, A. (2015). The effects of constraints and mastery on mental and physical health: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considerations. *Psychology and Aging*, 30(2), pp.432-448.
- Jahoda, M. (1982). *Employment and unemployment: A social-psychological analysis*.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alil, A., Ziolo-Guest, K. M., Hawkey, L. C., & Cacioppo, J. T. (2009). Job insecurity and change over time in health among older men and women.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doi:10.1093/geronb/gbp100.
- Lachman, M. E. & Weaver, S. L. (1998). The sense of control as a moderator of social class differences in health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3), pp.763-773.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 McDonough, P. (2000). Job insecurity and health.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Services*, 30(3), pp.453-476.
- Nolan, J., Wichert, I., & Burchell, B. (2000). Job insecurity, psychological well-being and family life. In E. Heery & J. Salmon (Eds), *The Insecure Workforce* (pp.181-209). London: Routledge.
- Pearlin, L. I., & Schooler, C. (1978). The structure of cop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 pp.2-21.
- Pearlin, L. I., Menaghan, E. G., Lieberman, M. A., & Mullan, J. T. (1981). The stress proc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2, pp.337-356.
- Pearlin, L. I., & Bierman, A. (2013). Current issues and future directions in research into the stress process. In C. S. Aneshensel, J. C. Phelan, A. Bierman (Eds) *Handbook of the Sociology of Mental Health* 2nd ed (pp.325-340). Dordrecht: Springer Netherlands.
- Pelfrene, E., Vlerick, P., Moreau, M., Mak, R. P., Kornitzer, M., & Backer, G. (2003). Perceptions of job insecurity and the impact of world market competition as health risks: Results from Belstress. *Journal of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76(4), pp.411-425.
- Pudrovska, T., Schieman, S., Pearlin, L. I., & Nguyen, K. (2005). The sense of mastery as a mediator and moderator in the association between economic hardship and health in late life. *Journal of Aging and Health*, 17(5), pp.634-660.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pp.1069-1081.
- Ryff, C. D., & Keyes, C. L. M. (1995).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4), pp.719-727.
- Skinner, E. A. (1996). A guide to constructs of contro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3), pp.549-570.
- Sverke, M., Hellgren, J., & Näswall, K. (2002). No security: A meta-analysis and review of job insecurity and its consequences.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7(3), pp.242-264.

Virtanen, P., Janlert, U., & Hammarström, A. (2010). Exposure to temporary employment and job insecurity: A longitudinal study of the health effects.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doi:10.1136/oem.2010.054890.

정은경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현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손상, 질병, 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그 영향 및 적응이다.
(E-mail: kyuneu@snu.ac.kr)

하정화는 미국 미시간 대학교(앤아버)에서 사회복지학사회학 전공으로 석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노인의 건강, 사회 참여, 세대 관계, 임종기 케어와 사별 노인이다.
(E-mail: junghwaha@snu.ac.kr)

한경혜는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에서 인간발달 및 가족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겸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한국 베이비 부머의 가족과 삶, 세대관계, 중·노년기 건강, 일·가족 상호성 및 은퇴와 같은 생애전이다. 현재 '한국의 베이비 부머 종단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E-mail: ghhan1970@naver.com)

The Sense of Mastery as a Moderator and Mediator of the Impact of Job Insecurity on the Health of Korean Baby Boomers

Chung, Eunkyung

(Seoul National University)

Ha, Jung-Hwa

(Seoul National University)

Han, Gyoungha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job insecurity on baby boomers' health and the extent to which these effects are moderated and mediated by a sense of mastery. Analyses are based on data from the 2010 (Time 1; T1) and 2012 (Time 2; T2) waves of the Korean Baby Boomers Panel Study. The results show that higher levels of job insecurity at T1 and changes in the level of job insecurity from T1 to T2 are both associated with more physical symptoms at T2. A sense of mastery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a change in the level of job insecurity and physical symptoms, but it does not moderate the effect of job insecurity at T1. Also, higher levels of job insecurity at T1 and changes in the level of job insecurity lead to a decrease in mastery, which in turn increases physical symptoms. The findings suggest that job insecurity is a major stressor which leads to adverse health outcomes. Moreover, the findings underscore the need to develop social policies which ensure employment stability as well as interventions to increase psychological resources.

Keywords: Baby Boomer, Job Insecurity, Health, Mastery, Stress Process Model